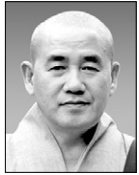


일 주 문



중앙승가대 최초 명예교수 임명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법 스님은 5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법 스님을 중앙승가대 최초 명예교수로 임명했다.



제21기 월정사 단기출가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7월 1~23일 실시되는 '제21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행사를 5일까지 모집한다. (033)339-6616



해인만다라 글·그림 잔치 개최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5월 23일 '제4회 해인만다라 글·그림 잔치'를 개최했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123명에 수계
대구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은 5월 26일 대구교도소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불자 재소자 123명에게 5계를 내렸다.



원효 성사 탄생 다례제 법문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5월 27일 경산 제석사에서 열린 '원효 성사 탄생 다례제'에 참석해 법문했다.



제21회 영산대제 봉행
서울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장)은 6월 6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제21회 영산대제'를 봉행한다. (02)392-3007



김재일 법사 1주기 추모법회
동산반야회 안동일 이사장은 초대 이사장 김재일 법사 1주기 추모법회를 6월 7일 동산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봉행한다. (02)732-1206



문화재청 문화재 유실 안전점검
이건부 문화재청장은 6월 1~12일 문화재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수타사 등 50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042)481-4650



대불청 정상욱 지도위원 국민훈장
대한불교청년회 정상욱 지도위원은 5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 문화발전과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불교방송 방송제작국장 임명
불교방송(사장 최명준) 박상필 팀장(TV제작2팀)이 5월 19일 방송제작국장에 임명됐다.

東大 불교학술원 초대 원장에 버스웰 교수

동국대 이사회 26일 승인

한국불교학 석학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56·사진)가 초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에 임명됐다. 동국대 이사회(이사회장 영배)는 5월 26일 제244회 이사회에서 로버트 버스웰 교수 등 5인의 신규 교원 임용건을 승인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동국대 홍보실은 "불교학술원 연구전담교수(비정년트랙)로 신규 임용된 버스웰 교수가 원장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한국불교학자로 한국 불교를 서양에 소개하고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 온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21세이던 1974년에는 전남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명'이라는 법명을 받고 5년간 수행하기도 했다. 1985년 UCLA 대학에서 '금강삼매경론'의 한국적 기원'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 UCLA에 한국학연구소 설립하는 한편, <금강삼매경>과 지능 스님 전집을 번역해왔다. 버스웰 교수는 한국학 전공자로서는 최초로 중국학과 일본학이 주도하는 미국의 동양학 분야에서 2008년부터 2년 임기의 미국의 아시아 학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학회장으로 선출되어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같은 해, 영어권 국가에 한국학과 한국 불교를 소개하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만해대상(포교부)을 수상했다. 버스웰 교수가 임용된 불교학술원은 현재 동국대가 설립중인 연구기관이다. 불교학술원은 불교문화연구원, 동국역경원,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의 유기적인 연구 지원·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다. 동국대 관계자는 "영어권은 물론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도 신망 높은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직을 맡게 됨에 따라 불교학술원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연구자들 사이에도 신망 높은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직을 맡게 됨에 따라 불교학술원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찬불가공양 효과적 포교방편”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김귀련 초대회장

“전국 150여 불교합창단 회원들과 함께 국내외에 찬불가를 널리 보급하고 불려서 음성포교의 신기원을 이루겠습니다.” 5월 21일 광주 전동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김귀련(61·법명 감로수·사진) 회장, 부산생명나눔실천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사명대사추모회 후원회장과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부산 각로사 신도회장을 맡아 포교 최일선에서 법을 전하는 부부나혼자의 후예다. 지역포교 및 신생활 등에 앞장서 온 김 회장은 “앞으로 관련 단체 어른들의 양해를 구해 단체장을 사임한 뒤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활성화에 전력 투구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조계종 총무원장) 산하기구인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는 종단을 초월해 불교합창단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음악을 통한 포교로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했다. 지난 1월부터 종단협의회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연합회 구성을 합의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 회를 가져, 창립 당시 80개 합창단이 연합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전국에는 아직 70여 합창단이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 김 회장은 “합창단의 화합과 정보교류를 위해 전국을 돌며 연합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견수럼에 나서는 한편 150여 합창단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로 발돋움 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불교를 노래로 전하는 것은 어떤 법문보다 효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포교방편”이라며 “훌륭한 작곡가들과 연대해 좋은 불교음악을 만들어 보급하는데도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찬불가 경연대회는 물론 해외에 불교음악을 보급하고 세계불교대회나 유엔 웨삭데이 등 국제행사에서 합창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포교에도 힘을 계획이다. (02)2001-1772 김성우 기자



“극락왕생하소서”

불자탤런트 故 여운계씨 22일 타계

47년 연기인생을 불심으로 꽃피웠던 불자탤런트 故 여운계(사진)씨가 5월 25일 우리 곁을 떠났다. 발인식은 25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불교식으로 진행됐으며 많은 연예계 선구배들이 찾아 조문했다. 특히 불자연예인으로 절친한 동료였던 전원주 김형자 선우 용녀 등은 하염없이 눈물을 뿌리며 故 여운계씨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전원주씨는 화제가 진행될 벽제 순화원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라고 목놓아 울어 애석함을 터냈다. 고인의 유해는 발인 후 연구처에 실려 고인이 처음 연기 생활을 시작해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던 KBS를 찾았다. 이날 유족은 영정과 위패를 들고 스투디오 등을 돌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이후 오전 11시 벽제 순화원에서 화장된 뒤 오후 1시경 경기도 양시 해인사 미타원에 안치됐다. 고인의 영정은 평소 신생활을 이어갔던 우이동 회계사에 모셔져 이곳에서 49재도



봉행될 예정이다. 한 편 마지막까지 투병 사실을 숨긴 채 KBS 2TV 아침드라마 '장미꽃'에 출연하며 연기 투혼을 불태운 여운계씨는 급성 폐렴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후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면서 향년 69세로 22일 별세했다. 무학여고와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62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故 여운계씨는 '사랑이 뭐길래' '대장금' '내사랑 누굴까' '파파도' 등의 작품을 통해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66년 제3회 동아연극상 여우주연상, 1974년 제10회 백상예술대상 여자최우수연기상, 1996년 SBS 연기대상 특별상, 2000년 KBS 연기대상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문화부 조창희 신임 증무실장 지관 스님 예방



문화관광부 조창희 신임 증무실장은 5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은 공직자 종교편향방지 업무, 문화재 보호 등 불교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노덕현 기자

광주전남교지도자협의회 창립



5월 15일 광주전남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회장 장우)는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창립식에는 성오 스님(광주총교사연합회장) 등 스님들 비롯해 비광대 광주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행선(광주전남지사장) '청정승가대중결사' 첫 지역 간담회 열려



구미 대운사 주지 진오 스님과 천안민일사 주지 마가 스님 등 조계종 중진 스님 50여 명은 5월 27일 대구 보성선원에서 청정승가대중결사의 첫 지역 간담회를 열었다. 손법천(대구지사장)

정토회 등 종교초월 '나눔과 비움 바자회'



정토회, 경동교회, 문정동 성당은 5월 23일 청구대학교에서 '나눔과 비움, 내비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행사에는 법문 스님, 박종화 목사, 김홍진 신부, 배우 배종옥씨 등이 함께했다. 이상언(기자)

지구촌공생회, 독거어르신과 청년대 나들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5월 22일 광진구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충북 청원군 청남대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어르신과 공생봉사단(단장 이지현) 8명도 함께했다. 노덕현 기자

42기 기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주 수련 만으로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다.
▶ 11주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 수련일자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4:20(11주과정)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 대상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개강(지방 수련원)
■ 대구 수련원 : 6월 18일, 20일 / tel : 053-652-2202
■ 부산 수련원 : 6월 13일, 오후 2시 / tel : 051-645-5068

기력쇠진, 기순환 장애, 수술 후유증, 원인 모를 병증 상기증 산후풍, 간경화 등 기치유 상담. 대표 전화 : 02-3482-5032

종사학과(宗師學課) 개설 학인모집

(각 종단 원장급 이상을 모집니다)

- 1. 종무 행정학(宗務行政學)
2. 종사 사위의학(宗師四威儀學)
3. 종사 풍광학(宗師風光學)

<입학 자격 및 전형>
1. 입학자격 :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및 각급 원장 이상.
2. 구비서류 : 본원 소정의 입학 서류.
3. 입학전형 : 소속 종단 총무원장 발행 재직 증명서 1부
4. 여권사진 : 3매
■ 수강기간 : 1년
■ 개강일시 : 2009년 6월 30일 오전 10시
■ 수강시간 : 매주 화요일 10 - 15시(점심공양 제공)
■ 접 수 처 : 031)676-0908 / 010-3100-9977

- <학과 개설 의의>
1. 본 학원에서는 종사가 지녀야 할 종사의 기풍을 선양하고자 함.
2. 종사학은 종사가 지녀야 할 선(禪)과 교(敎)와 의식(儀式)행식 등 고도의 법상을 선양하고자 하는데 있음
3. 민족대표 백용성 조사와 봉암대강백의 뜻을 받들고자 함.

龍鳳學林 중앙불교대학원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흥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자들을 모집합니다. 특히 본 종단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투명하고 종단운영과 정통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 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입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 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복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011-228-781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3조. 개인 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분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統合佛敎儀式大典 出刊



Table with 3 columns: 사찰구제편, 고사편, 추진인. Lists 9 items in each column and name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統合佛敎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 017-552-7350
계좌번호 : 농협 803-02-752331 예금주: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김묘경